

전남 꼭 막힌 취업에 '나홀로 사장' 만 늘어간다

자영업자 광주 19.2%·전남 29.7%...전남 11개월 연속 전국 최고 전남 '나홀로 사장' 비중 86.4%...지난해보다 1만2000명 증가 '직원 둔 자영업자' 전국 32개월 연속 감소...31년만에 가장 적어

전남 자영업자 비중이 지난해 9월부터 11개월 연속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숙박·음식점 등 자영업자 취약업종에서 시작된 고용 시장 악화가 전방위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광주 19.2%·전남 29.7%로 집계됐다. 광주 전체 취업자 75만400명 가운데 19.2%에 달하는 14만5000명이 자영업자였고, 전남은 99만2000명 중 29만5000명(29.7%)가 자영업자로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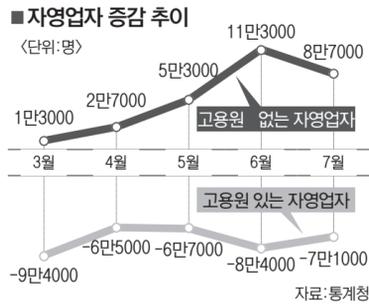
타났다.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광주는 1000명 줄어든 반면, 전남은 1만2000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광주에서 1000명, 전남에서는 5000명 줄어 들었다.

전남의 경우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는 지난 5월(-3000명)에 이어 6월(-6000명), 7월(-5000명) 등 석달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를 기록하고 있다.

고용원이 없는 '나 홀로 사장'은 광주에서 1000



명 감소하고, 전남에서는 무려 1만7000명 증가했다. 전남지역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증가 추세는 지난해 9월(전년 동기비 1000명↑)부터 11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전남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25만5000명에 달했다.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86.4%로, 경북(87.7%)과 함께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전국 평균 비율은 77.1%(556만4000명 중 429만명)였다.

지난달 전남 자영업자 비중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남 자영업자 비율은 지난해 같은 달(28.8%)보다 0.9%포인트 증가했다. 전남(29.3%)에 비해서는 0.4%포인트 늘었다.

지난달 전국 평균 자영업자 비중은 20.1%이었고, 전남에 이어 제주(28.7%), 경북(28.2%), 전북(26.7%), 경남(24.5%), 강원(24.4%), 충남(24.1%), 부산(22.6%), 충북(21.3%), 대구(20.4%) 등 순이었다.

전국 평균을 밑돈 지역은 세종(15.4%), 서울(16.0%), 울산(16.2%), 인천(16.9%), 경기(17.2%), 대전(18.3%), 광주(19.2%) 등 7개 시도였다.

전남 자영업자 비중이 전국 최고를 기록한 건 지난해 9월부터다. 지난해 9월 전남 자영업자는 전체

취업자 98만2000명의 29.0%에 달하는 28만5000명이었다. 이 비중은 전국 평균 20.6%를 크게 웃돌았다.

지난해 8월까지의 제주 자영업자 비중이 30%에 육박하며 전국 1위를 차지해 왔으나 지난해 1월에는 전남 자영업자 비중이 28.0%(평균 20.4%)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한편 전국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7만1000명 감소한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8만7000명 늘었다. 이로써 고용원 있는 전국 자영업자는 2018년 12월부터 32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를 기록했다.

고용원을 둔 전국 자영업자 수는 127만4000명으로 7월 기준으로 지난 1990년(119만5000명) 이후 31년 만에 가장 적었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4.6%로 7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대만 공략 나서는 영암산 햇배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서홍·왼쪽)는 17일 영암 신북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올해 처음 수확한 조생종 원황배 34t을 대만으로 수출하기 위한 상차식을 열었다. 신북농협은 지난해 수출총액 170만 달러를 달성, 농협중앙회가 수여한 수출 100만 달러 달성 탑을 수상했다. <전남농협 제공>

한은 광주전남본부, 중기 특별자금 200억원 지원

업체당 3억원 한도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추석을 앞두고 운영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200억원(금융기관 취급 대출액 4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출한 금액의 50%를 한은이 해당 금융기관에 저리(연 0.25%)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으로 업체당 3억원 한도

내(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6억원)에서 지원한다.

오는 광주·전남 소재 업체에 대해 이달 18일부터 9월17일까지 금융기관이 취급한 대출이다.

단 부동산업, 유흥업 등 대출제한 업종에 속한 업체와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병원 및 의원 등 전문업종은 제외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해양에너지, 한국광기술원과 광융합산업 발전 협약

장비개발·전문인력 양성 등 협력

광주·전남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해양에너지가 광융합산업 및 에너지분야 발전에 힘쓰기로 했다.

해양에너지는 최근 한국광기술원과 광융합산업 및 에너지분야의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협약 체결식은 최지영 ㈜해양에너지 사업전략부부장장과 송상빈 한국광기술원 조영에너지 연구

구분부장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에너지산업 분야 광융합기술 관련 연구 및 장비개발, 미래시장 진출, 전문인력 양성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해양에너지는 올해 4월 기업부설 연구소인 미래융합연구소를 설립하고 태양광 발전사업과 연료전지 발전사업, 가스기기 판매, 수소충전소 사업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펼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코로나 폐업' 임대계약 중도해지 법 개정 추진

법무부 하반기 국회 제출

정부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자영업자들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한국신용데이터·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말 소상공인 매출 지수는 2019년 동기 대비 약 44%까지 대폭 감소했다.

하지만 임대가격지수는 2019년 4분기 대비 97.3%로 거의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상가 임차인이 경영 악화로 어쩔 수 없이 폐업하더라도 똑같은 금액의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법정 해지권'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상가 임차인이 감염병에 따른 집합금지·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9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고통 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덕남동, 임야

- ▶ 장·단기 최고 투자처
-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 임야 661㎡, 지분매매
- ▶ 매매 - 6000만원

오피스텔 신축부지

- ▶ 신안동, 대지 582㎡(구 176평), 상업지역
- ▶ 지하1 지상10층, 15평, 72개 허가특
- ▶ 법인 양도·양수 가능
- ▶ 분양/임대 100%될 장소
- ▶ 매매 - 협의

문의. 010-3605-5000